장애인 교육 표준

우리의 이야기: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교육 제도 관련 개인적 경험담

본 자료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업 중 경험한 개인적인 경험담들입니다.

본 자료는 장애를 가진 학생과 학부모,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고안하였습니다.

자료 소개

본 자료는 호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본 자료는 장애 학생 및 청소년의 부모 및 보호자가 호주 장애 아동 및 청소년(CYDA,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Disability Australia) 및 국립 다문화 장애인 동맹(National Ethnic Disability Alliance, NEDA)의 도움을 받아 고안하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호주 전역의 전통적 소유자들과 토착민들을 인정합니다. 저희는 토지와 물, 지역사회와 이들 간의 지속적인 연결성을 인정합니다. 저희는 그들과 그들의 과거 및 현재 장로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화적, 영적 교육적 관습에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언어 관련 참고사항

본 자료에는 인칭 우선 언어(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학생)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며, 많이 사람들은 진단 우선 언어(예: '장애 학생')을 선호합니다.

어떠한 정체성을 선택할 것인지는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는지 물어보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이 모든 용어에 대한 깊은 역사를 인정합니다.

'**합당한 조정**' 또는 '조정', '조치'라는 단어들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십시오. 이 단어들은 본 자료에서 교차 사용됩니다. '**합당한 조정**'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에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추가 자료

본 자료는 여러 자료들 중 하나입니다. 교육부 웹사이트 또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검색 가능합니다.

본 자료는 이지 리드 및 오슬란, 여러 다른 언어로도 열람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들은 호주 정부 교육부 웹사이트 또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QR 코드 스캔

내용 참조: 본 정보 자료에는 비장애인 중심주의, 장애인 차별주의 차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라이프라인(Lifeline)에 13 11 14번으로 전화하거나 0477 13 11 14번으로 문자를 보내십시오

본 자료의 대상

본 자료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의 실제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1. 교육 관련 경험담
2. 그러한 경험을 통해 배운 점
3. 알고 싶은 점

이들의 경험담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중요합니다. 이들 모두 교육 제공자들이 *장애인 표준 교육 2005* (DSE) 을 어떠한 방식으로 따르고 있는지와 학생들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해 무엇이 개선되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은 장애인 교육 표준(DSE)에 따른 여러분의 권리에 대해 배우기가 가능합니다. 그 후 다음을 읽어보세요.

- 릴리의 이야기
- 다니엘의 이야기

고지사항: 이 이야기들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이야기와 의견 및 경험담에 관한 것입니다.

릴리의 이야기

내용 참조: 비장애인 중심주의와 장애인 차별주의 언급.

초등학교때부터 나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달리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민자 출신인 우리 가족은 문화적인 이해는 물론 장애나 정신 건강 관련 지원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왜 어울리지 못하는지 무엇을 해야만 소속감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해야 할 말이나 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대학교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고 나서야 나는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내가 정말로 누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났고 그동안 나의 잠재력을 다 펼치지 못했다고 느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나를 도와주고 가르쳐주려고 성의를 다 했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의 일원이라는 것을 느꼈고, 더불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성장하는 데에 우리가 조력자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 비록 나는 호주에 없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교육에 대한 접근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고 학교는 나와 같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접근 가능한 조정과 지원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나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학자 및 기관들과 함께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경이나 경험 덕에 장애에 대해 좀더 이해하는 편이고 나의 필요사항에 대해 기꺼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느린 처리과정과 의사소통 문제 및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못하는 등 계속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고, 특히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의료 기록이나 자료들을 제출해야 할 때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일단 조정이 이루어지고 나니 상대적으로 영향이 컸습니다. 수많은 장애물들을 거치고 나니 기관들은 나와 내 동료들을 도와 주기 위한 여러 가지 조정과 수정들을 상당히 융통성 있게 제안해 주었다는 점에 나는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 전반에 걸쳐 학생들을 지원하고 차세대의 어린 학생들이 이러한 지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인식과 가시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들의 개발과 구축이 절실합니다.

나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다른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비정상도 아니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진심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값지고 보람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선입견 없이 진정한 동료들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나는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하거나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는 여기서 언제나 여러분을 돕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게 쉽지 않다는 점을 잘 압니다만, 그런 순간들이 우리를 더 많은 배움과 성장, 원동력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

다니엘의 이야기

내용 참조: 비장애인 중심주의와 장애인 차별주의, 의료적 통제, 교사의 괴롭힘 언급.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나는 부정적인 측면부터 긍정적인 측면까지,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면까지 다양한 면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자폐와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ADHD), 그리고 불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때 저는 심각한 '행동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초등학교 생활 경험은 선생들이 항상 내 성적표에 적은 대로, '다니엘은 총명하고 잠재력이 큰 학생이지만, 교실에서 자신을 통제하거나 주어진 임무에 온전히 집중을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지금도 많은 교육 현장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지고 있겠지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내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부적절한 말들을 했지요. (혹은 교실의 광대라는 내가 지은 별명대로 행동했습니다.) 정서적 지능과 장애물에 부딪혀 나가는 저항력이 부족했습니다. 나는 ADHD 진단을 받고 초등학교 생활 내내 약을 먹었습니다.

점심시간 마다 오피스로 가서 한번 더 먹어야 하는 ADHD 약을 받아오면서 나는 내가 기피대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과제를 내 방식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선생님들과 말다툼을 하는 등 선생님들과 충돌이 많았습니다. 또한 동급생들과도 이러한 일들로 힘들어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진단되지 않았던 나의 자폐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는 사건이 있는데, 내가 만지작거리고 있던 슬라임을 다른 학생이 낚아채어 갔습니다. 나는 정중하게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그 아이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교장 선생님 사무실에 그 학생과 함께 있는데 그 여자아이 머리에 내 슬라임이 엉켜 있는 장면으로 기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다지 자랑스러운 기억은 아니지요. 초등학교 시절 내내 여러가지 행동 관련 사건을 겪었고, 구구단 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월등히 앞선 것 말고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나는 *장애인 교육 표준 2005*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학교가 나를 돕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했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다면 (아니면 나한테 물어봤다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내가 학습하고 포용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내가 처음 했던 액티비티가 기억납니다. 아주 큰 체육시설에 있는 동안에 반 배정을 받는 중이었는데, 소리가 그 장소 곳곳에서 크게 울렸었습니다. 내가 어떤 반에 배정이 되었는지 알아듣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 반을 찾느라고 30분 동안 교내 전체를 걸어다녀야 했습니다. 이 점을 제외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은 나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자폐 진단을 받았고 나의 개인 목표를 돕기 위해 교실을 수정하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2학년 수학 수업을 11학년에 배웠기 때문에, 12학년 과정에서 그 과목을 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타 수업 쉬는 시간을 추가로 합치면, 내 12학년 스케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가 되었습니다.

> 당시 나는 파트타임 일을 했고, 직장에서 경영 전문 개발의 일환으로 소매분야 Certificate IV을 받았습니다. 이는 나의 호주 대학 입학 점수(ATAR)에 가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낮에 공부를 마치고 일을 해서 열심히 삶을 사는 17살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의 목표와 필요사항에 귀 기울이고 나의 학업 구조를 계획할 때 나를 포함시킬 수 있었던 학교의 능력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시험을 볼 때에도 나는 남보다 긴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시험실에서 음식을 먹고 시험실 안을 걸어다닐 수 있는 등의 '우대'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나는 따로 격리되었고 다른 친구들은 시험 전에 교실 밖 복도에서 농담을 주고 받고 떠들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아주 따돌려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장애인 교육 표준에 따른 나의 권리에 대한 자료나 내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학교가 합당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았지만, 나에게 '**이러한** 옵션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주어졌지 '교육 참여를 위해 **어떠한** 합당한 조정이 있어야 할 지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아니었습니다. 학교가 나를 위해 해준 점들에 만족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학교가 무척이나 일을 잘 했지만 돌이켜보면 권위주의적 성격이 조금 있었던 듯 합니다.

대학 교육

교육 관련한 다음 번 경험은 내가 대학교에서 음악 학사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내가 다녔던 대학교는 장애인 지원의 질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나에게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거나 지원을 신청할 기회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장애인 교육 표준에 따라 학교에서 지원해야 했었던 점들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는 압니다. 나는 내 성격을 (또는 ADHD로 인한 나의 산만함)을 좋아하지 않았던 교수의 괴롭힘의 대상이었습니다.

> 전반적으로, 대학교는 모든 일을 잘못했고, 이로 인해 나는 수업을 빠지고, 실습을 빠지고, 대학교 생활 전반에 잘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몇 번이고 모든 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고 싶었습니다. (계속 다니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지원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침내 서류 작업을 마치고 이 경험을 끝낼 수 있게 되어서 나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전문 음악인이 되고 싶었던 꿈을 접기로 하고, 나는 대학교로 돌아가 심리학 학사 과정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대학교에서의 경험이 있고 난 뒤라서, 1학년 때 나는 장애 지원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별도 지원 없이 내가 모든 대학교 생활을 다 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하고 싶은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내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나는 장애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고 장애인들의 삶에 지원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호주 법에 따라서 내 교육에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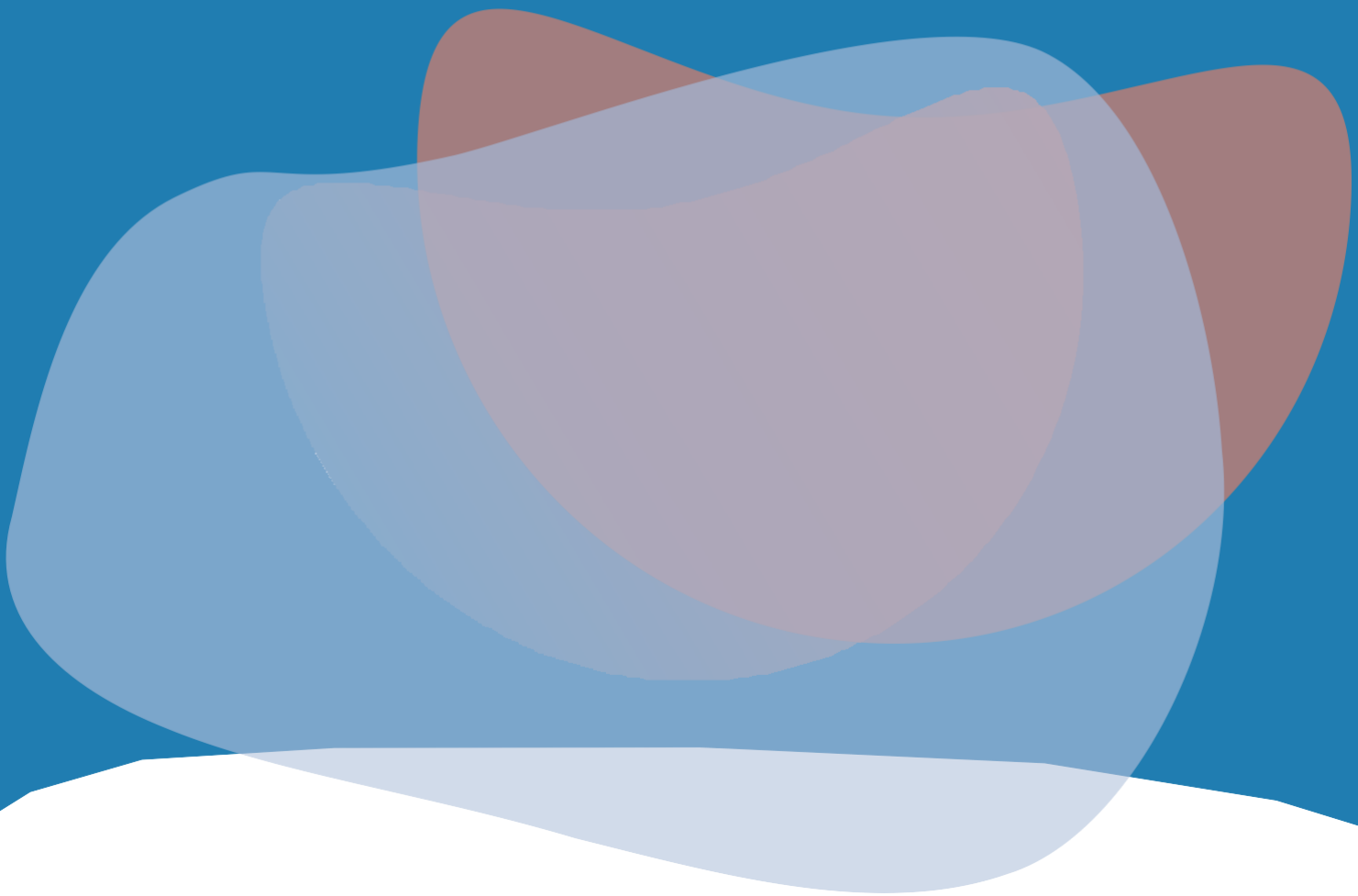
나는 우리 대학교의 장애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결정했고 마감기한 및 시험 쉬는 시간의 연장을 받고 내가 과정을 밟는 동안 캠퍼스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가지는 등 엄청난 지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고 뒤쳐지거나 마감기한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나를 도와 방향을 제시해주었기 때문에 이는 나에게 아주 큰 가치가 되었습니다.

또한 풀타임으로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풀타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고 나의 진로와 경제적 목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과정을 마치고 나에게 심리학 우등 학위가 주어졌지만, 내가 꿈꾸는 진로 기회를 위해서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의 18년 간의 교육 경험의 스냅샷을 통해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지원은 정말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거나 장애가 나의 능력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원이 필요하다면, 소외감을 느끼거나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장애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지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의 차이는 교육 경험을 증오하거나 정말로 즐기게 되거나 하는 차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www.education.gov.au/disability-standards-education-2005